

광공업  
주요 동향

경제 및 고용 동향

◆ 2010년 7월 생산·소비·투자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

○ 2010년 7월 광공업 생산은 기타 운송장비, 담배 등은 부진하였으나 반도체 및 부품, 기계장비 등의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15.5% 증가하였고, 서비스업은 운수, 보건·사회복지, 도매, 소매 등의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3.4% 증가함으로써 8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임.

-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 및 부품(27.6%), 기계장비(54.1%), 자동차(25.9%)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으나, 기타운송장비(-10.6%), 담배(-4.7%), 나무제품(-5.1%) 등은 감소함.
- 서비스업 생산은 부동산·임대(-15.6%), 교육(-3.6%), 예술·스포츠·여가(-0.4%) 부문에서 감소하였으나, 운수(13.8%), 보건·사회복지(10.0%), 도매·소매(6.6%),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6.4%), 하수·폐기물처리(4.5%) 등의 부문에서 전년동월대비 큰 폭으로 증가함.

○ 2010년 7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8.6%, 설비투자는 전년동월대비 33.5% 증가함.

- 소비재판매액지수는 가전제품, 컴퓨터·통신기기, 승용차 등 내구재에서 전년동월대비 18.1% 증가하였으며, 의복, 오락·취미·경기용품 등 준내구재에서 9.4%, 음식료품, 화장품,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에서 3.4% 증가함.
-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와 운송장비의 투자가 모두 늘어 전년동월대비 33.5% 증가함.
- 건설기성액(불변)은 토목공사 실적 증가로 전년동

월대비 3.5% 증가하였으며, 건설기성액(경상)은 공종별로는 건축 및 토목공사, 발주자별로는 공공·민간부문 모두 실적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10.6% 증가함. 건설수주(경상)는 건축공사 및 토목공사 발주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22.2% 증가함.

- 현재의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5p 상승하여 2009년 3월 이후 17개월 동안 상승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도 전년도 선행종합지수의 가파른 상승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 등으로 전월대비 0.4%p 하락함.

◆ 2010년 8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2.6% 상승(생활물가지수 2.7% 상승)

- 2010년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6.3(2005=100)으로 나타나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2.6% 상승하여 2010년 2월 이후 6개월째 2%대 상승을 기록하고 있으며, 8월 생활물가지수는 118.2로 나타나 전월대비 0.4%, 전년동월대비 2.6% 상승함.
  - 기타 잡비(-0.2%) 부문만 전월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감소하였으며, 이외 모든 부문에서 전월대비 상승함. 특히 식료품·비주류음료(1.7%)의 상승폭이 컸으며, 가구집기·가사용품(0.5%), 주거 및 수도·광열(0.3%) 등을 중심으로 상승함.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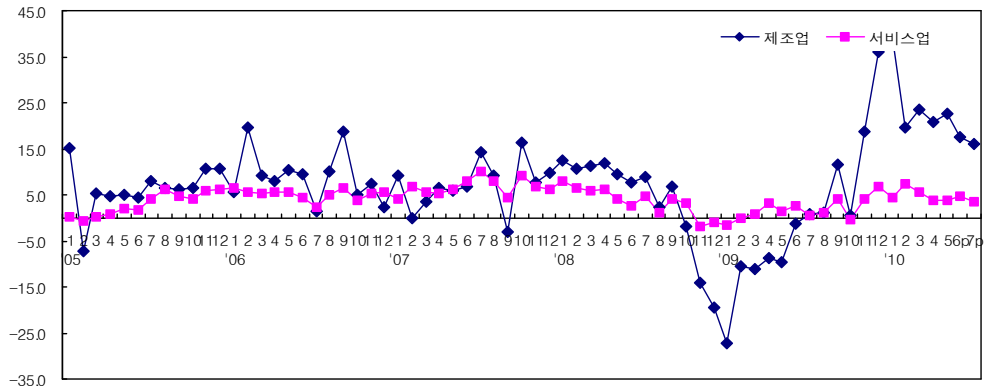
(단위 :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2008					2009					2010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7월	1/4p	2/4p	7월
생산	광공업 생산	10.6	8.9	5.6	11.3	3.0	-15.7	-6.1	4.2	16.2	-0.8	-1.1	25.8	19.5	15.5( 1.1)
	제조업 생산	10.7	9.3	5.5	-12.1	3.0	-16.5	-6.6	4.4	16.8	-0.9	-1.3	26.8	20.2	15.9( 0.6)
	출하	8.9	6.6	5.3	-10.1	2.4	-14.9	-5.8	2.1	12.8	-1.7	-0.3	21.8	17.2	14.3(-0.8)
	내수	5.3	1.7	1.7	-11.0	-0.7	-15.7	-5.9	3.1	12.3	-1.8	0.4	21.2	15.4	12.8(-0.8)
	수출	14.3	14.3	10.3	-8.8	7.1	-13.8	-5.7	0.8	13.3	-1.7	-1.3	22.5	19.7	16.1(-0.8)
	서비스업생산	6.4	4.8	3.2	-0.4	3.4	-0.3	2.4	2.2	3.7	2.0	2.5	5.7	4.0	3.4(-1.0)
소비	소비재 판매	3.9	2.9	1.4	-4.2	1.0	-4.7	1.5	3.4	10.8	2.6	7.6	9.9	4.9	8.6( 1.2)
투자	설비투자	-0.9	-2.7	5.3	-13.4	-4.3	-17.9	-12.9	-10.1	10.2	-8.0	-3.7	25.5	24.5	33.5(-3.1)
물가		3.8	4.8	5.5	4.5	4.7	3.9	2.8	2.0	2.4	2.8	2.2	2.7	2.6	2.6( 0.3)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2007.12.28)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을 포괄하며, 이 중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산업에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함.  
 3) 물가지수는 7월 기준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서비스업활동동향』, 각호.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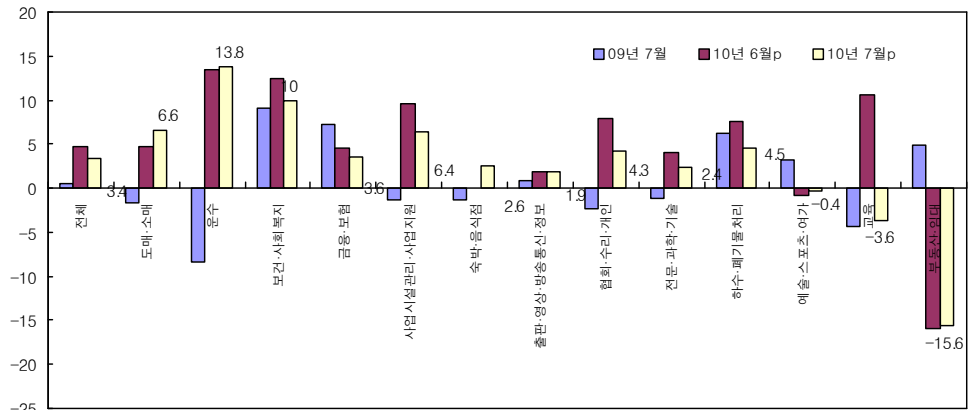
(단위: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주: p는 잠정치임. 서비스업 활동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대분류 11개 품목임.  
 자료: 통계청(2010. 8), 『2010년 7월 산업활동동향』.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 추이

(단위: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주: p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KOSIS.

(김복순,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 취업자 증가세 지속

- 2010년 7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5,23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7천 명(1.9%) 증가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4,713천 명으로 219천 명(1.5%) 증가하였고, 여성은 10,519천

명으로 258천 명(2.5%) 증가함.

- 2010년 7월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2.1%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성(74.1%)이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하였고, 여성(50.7%)은 전년동월대비 0.7%p 상승하였음.
  - 2010년 이후 여성 경제활동인구증가율이 크게 증가했고 추세가 이어짐(그림 3 참조).
- 2010년 7월 중 고용률은 59.8%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남성의 고용률은 71.1%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하였고, 여성의 고용률은 49.1%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하였음.
  -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 이후 큰 폭으로 감소했던 고용률이 회복하는 추세를 이어감(그림 3 참조).
- 2010년 7월 중 취업자는 24,30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3천 명(2.0%)이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4,11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0천 명(1.7%)이 증가하였고, 여성 취업자는 10,18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33천 명(2.3%)이 증가함(그림 4 참조).
- 2010년 7월 중 실업자는 93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천 명(0.4%)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3.7%로 전년동월대비 동일함.

〈표 2〉 최근의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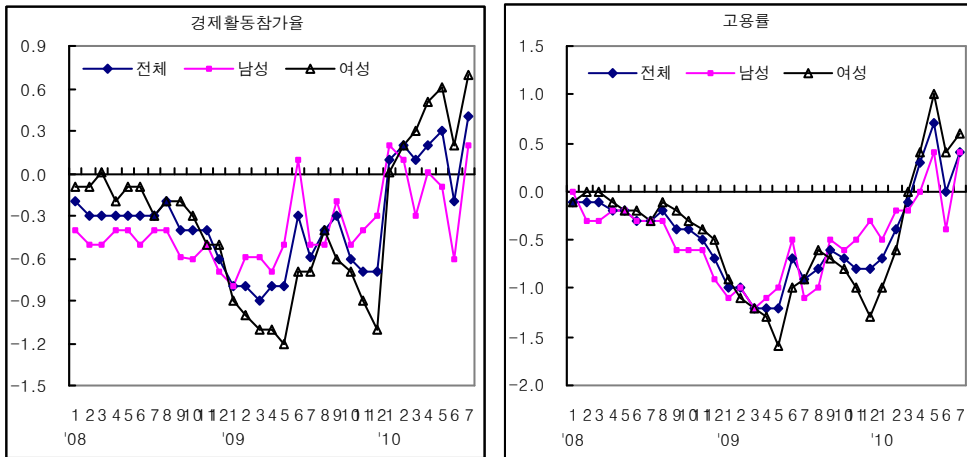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09					2010			
	1/4분기	2/4분기	3/4분기	7월	4/4분기	1/4분기	2/4분기	6월	3/4분기
경제활동인구	23,812 (-0.2)	24,680 ( 0.2)	24,637 ( 0.5)	24,756 ( 0.3)	24,448 ( 0.2)	24,166 ( 1.5)	25,038 ( 1.5)	25,158 ( 0.9)	25,232 ( 1.9)
참가율	59.7	61.7	61.3	61.7	60.7	59.8	61.8	62.0	62.1
취업자	22,904 (-0.6)	23,737 (-0.6)	23,751 ( 0.0)	23,828 (-0.3)	23,631 ( 0.0)	23,037 ( 0.6)	24,170 ( 1.8)	24,280 ( 1.3)	24,301 ( 2.0)
고용률	57.4	59.3	59.1	59.4	58.7	57.0	59.6	59.8	59.8
실업자	908	943	886	928	817	1,130	868	878	931
실업률	3.8	3.8	3.6	3.7	3.3	4.7	3.5	3.5	3.7
비경제활동인구	16,088 (3.3)	15,347 ( 3.0)	15,528 ( 2.5)	15,369 ( 2.8)	15,829 ( 3.0)	16,254 ( 1.0)	15,493 ( 1.0)	15,415 ( 1.7)	15,383 ( 0.1)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100  
 자료 : 통계청(2010. 8), 『2010년 7월 고용동향』.

[그림 3] 성별 참가율(좌)과 고용률(우)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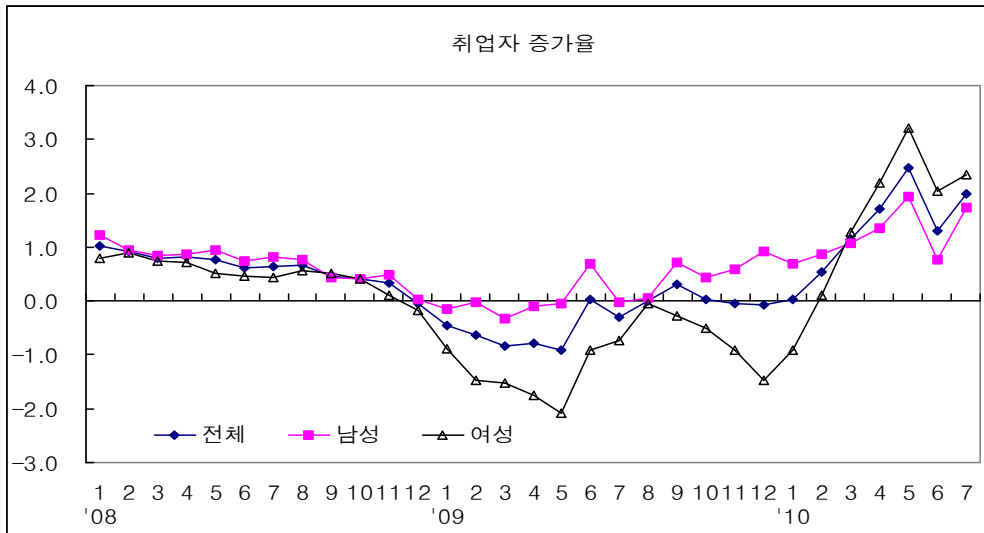
(단위: %p,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그림 4] 성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남성 실업자는 59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2천 명(-3.5%) 감소한 반면, 여성 실업자는 33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5천 명(8.1%) 증가하였음.
- 실업률은 남성이 4.1%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하였고, 여성은 3.2%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하였음.

- 2010년 7월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5,38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천 명(0.1%) 증가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14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9천 명(0.6%) 증가한 반면,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0,23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천 명(-0.2%)이 감소함.
  -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21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6천 명(26.9%) 증가함.
  -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수강 및 그 외 취업준비생인 '취업준비생' 61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천 명(-1.3%) 감소하였고,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쉬었음'은 1,34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1천 명(-3.0%) 감소함.

◆ 제조업·건설업 취업자 증가세 지속

- 2010년 7월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제조업(238천 명, 6.2%),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33천 명, 1.6%), 건설업(118천 명, 7.0%), 전기·운수·통신

〈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09					2010			
	1/4분기	2/4분기	3/4분기	7월	4/4분기	1/4분기	2/4분기	6월	3/4분기
									7월
전 산업	22,904 (-0.6)	23,737 (-0.6)	23,751 ( 0.0)	23,828 (-0.3)	23,631 ( 0.0)	23,037 ( 0.6)	24,170 ( 1.8)	24,280 ( 1.3)	24,301 ( 2.0)
농림어업	1,398 ( 1.0)	1,817 (-1.3)	1,799 (-1.4)	1,794 (-1.2)	1,579 (-6.9)	1,235 (-11.7)	1,733 (-4.6)	1,820 (-2.1)	1,754 (-2.3)
제조업	3,850 (-4.1)	3,843 (-3.8)	3,791 (-3.6)	3,802 (-4.3)	3,862 (-1.2)	3,911 ( 1.6)	4,015 ( 4.5)	4,017 ( 4.7)	4,040 ( 6.2)
건설업	1,705 (-2.5)	1,772 (-6.0)	1,699 (-5.7)	1,692 (-7.0)	1,704 (-5.9)	1,644 (-3.6)	1,816 ( 2.5)	1,843 ( 3.8)	1,810 ( 7.0)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589 (-2.0)	5,534 (-2.4)	5,511 (-2.8)	5,572 (-2.9)	5,511 (-2.6)	5,532 (-1.0)	5,461 (-1.3)	5,421 (-2.3)	5,552 (-0.4)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7,618 ( 3.2)	7,984 ( 4.5)	8,175 ( 5.9)	8,198 ( 6.1)	8,149 ( 4.6)	7,859 ( 3.2)	8,294 ( 3.9)	8,336 ( 2.3)	8,330 ( 1.6)
전기·운수·통신 및 금융업	2,722 (-2.6)	2,765 (-1.8)	2,753 (-0.9)	2,747 (-2.0)	2,802 ( 1.8)	2,834 ( 4.1)	2,831 ( 2.4)	2,822 ( 1.5)	2,797 ( 1.8)

주: 1)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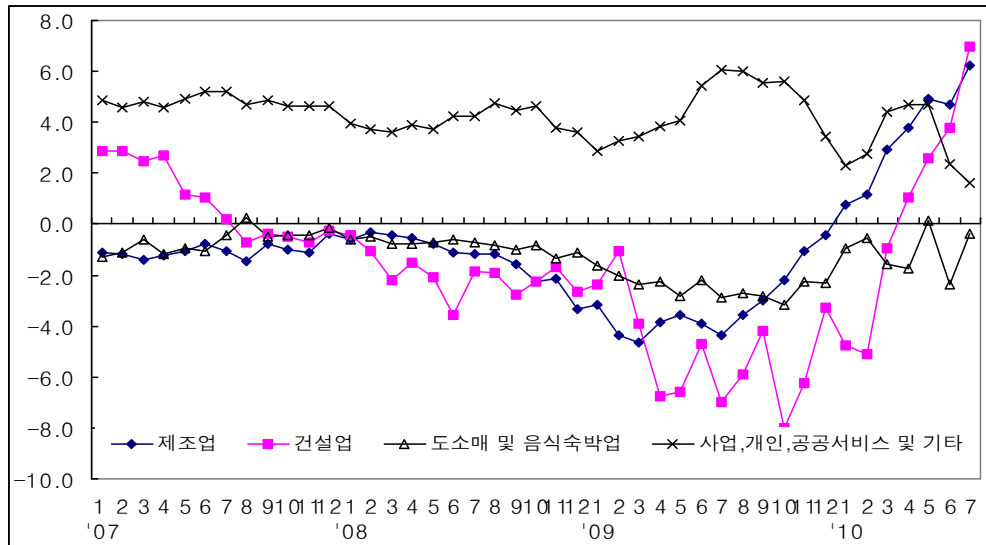
2) 9차 개정 산업분류를 적용.

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 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자료: 통계청(2010. 8), 『2010년 7월 고용동향』.

[그림 5]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신·금융업(50천 명, 1.8%)에서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40천 명, -2.3%),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1천 명, -0.4%)에서는 감소함.

– 제조업의 취업자 증가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2007년 이후 장기간 마이너스증가율을 보이던 건설업의 증가추세도 지속(그림 5 참조).

◆ 상용근로자 지속적으로 증가

○ 2010년 7월 중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는 7,07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6천 명(-2.3%) 감소하였고, 임금근로자는 17,22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39천 명(3.9%) 증가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0,107천 명으로 725천 명(7.7%)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5,215천 명으로 40천 명(-2.4%)이 감소하였고 일용근로자는 1,905천 명으로 46천 명(-2.4%) 감소함.

– 상용근로자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음(그림 6 참조).

○ 2010년 7월 중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42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2천 명(-5.6%) 감소하였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0,512천 명으로 660천 명(3.3%) 증가함.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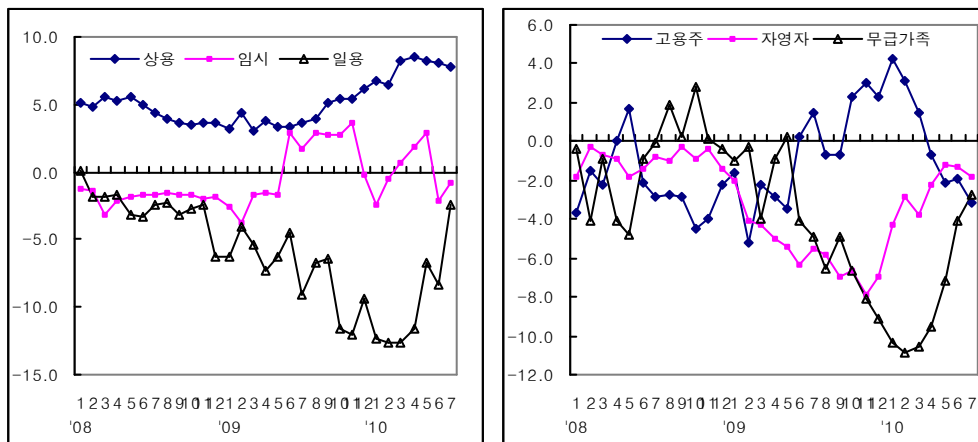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09					2010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7월	7월			6월	7월
전 체	22,904 (-0.6)	23,737 (-0.6)	23,751 ( 0.0)	23,828 (-0.3)	23,631 ( 0.0)	23,037 ( 0.6)	24,170 ( 1.8)	24,280 ( 1.3)	24,301 ( 2.0)
비임금근로자	6,877 (-3.1)	7,212 (-4.1)	7,166 (-4.7)	7,239 (-4.0)	6,952 (-5.3)	6,638 (-3.5)	7,023 (-2.6)	7,088 (-2.0)	7,073 (-2.3)
자영업주	5,620 (-3.4)	5,787 (-4.7)	5,776 (-4.6)	5,834 (-3.8)	5,600 (-4.7)	5,514 (-1.9)	5,696 (-1.6)	5,720 (-1.5)	5,706 (-2.2)
무급가족종사자	1,258 (-1.8)	1,425 (-1.6)	1,390 (-5.5)	1,405 (-4.9)	1,292 (-7.9)	1,124 (-10.6)	1,327 (-6.9)	1,367 (-4.1)	1,367 (-2.7)
임금근로자	16,027 ( 0.5)	16,525 ( 1.1)	16,585 ( 2.2)	16,589 ( 1.4)	16,678 ( 2.4)	16,398 (2.3)	17,148 ( 3.8)	17,193 ( 2.7)	17,228 ( 3.9)
상용근로자	9,157 ( 3.6)	9,294 ( 3.5)	9,487 ( 4.2)	9,383 ( 3.6)	9,621 ( 5.7)	9,808 ( 7.1)	10,060 ( 8.2)	10,089 ( 8.0)	10,107 ( 7.7)
임시근로자	4,928 (-2.7)	5,136 (-0.1)	5,174 ( 2.5)	5,255 ( 1.8)	5,167 ( 2.1)	4,892 (-0.7)	5,179 ( 0.8)	5,165 (-2.2)	5,215 (-0.8)
일용근로자	1,942 (-5.3)	2,094 (-6.0)	1,924 (-7.5)	1,952 (-9.1)	1,891 (-11.1)	1,699 (-12.5)	1,909 (-8.8)	1,938 (-8.4)	1,905 (-2.4)
36시간 미만	3,092 (11.6)	2,997 (-1.9)	3,390 (-33.9)	3,624 (313)	2,961 ( 4.5)	4,851 (56.9)	3,197 ( 6.7)	3,094 ( 3.3)	3,421 (-5.6)
36시간 이상	19,351 (-2.7)	20,480 (-3.0)	19,894 ( 9.7)	19,852 (-4.6)	20,404 (-0.7)	17,671 (-8.7)	20,705 ( 1.1)	20,897 ( 1.0)	20,512 ( 3.3)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2010. 8), 『2010년 7월 고용동향』.

〈그림 6〉 임금근로자(좌) 및 비임금근로자(우)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이고 자영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임.  
 자료 : 통계청, KOSIS.



◆ 20대, 40대, 60세 이상 실업률 증가

- 2010년 7월 중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은 20대, 40대, 60대에서 증가함.
  - 2010년 7월 중 연령계층별 실업률은 20대(8.2%, 0.2%p), 40대(2.4%, 0.1%p), 60세 이상(2.2%, 0.6%p)에서 증가한 반면, 15~19세(11.6%, -4.2%p), 30대(3.4%, -0.2%p), 50대(2.4%, -0.3%p)에서 감소함.
- 2010년 7월 중 전체 실업자 931천 명을 과거 취업경험 유무로 살펴보면, 취업 무경험 실업자는 5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천 명 증가하였고, 취업 유경험 실업자는 874천 명으로 3천 명 감소했음.

〈표 5〉 연령별·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09					2010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7월	8월			6월	7월
전 체	908(3.8)	943(3.8)	886(3.6)	928(3.7)	817(3.3)	1,130(4.7)	868(3.5)	878(3.5)	931(3.7)
15~29세	368(8.6)	351(8.0)	350(8.1)	379(8.5)	320(7.6)	408(9.5)	332(7.7)	355(8.3)	376(8.5)
30~39세	227(3.7)	237(3.9)	213(3.5)	217(3.6)	202(3.3)	234(3.9)	217(3.6)	209(3.4)	208(3.4)
40~49세	166(2.5)	176(2.6)	160(2.4)	157(2.3)	151(2.3)	192(2.9)	154(2.3)	151(2.2)	159(2.4)
50~59세	108(2.4)	127(2.7)	118(2.5)	127(2.7)	104(2.2)	150(3.2)	105(2.1)	101(2.0)	122(2.4)
60세 이상	39(1.6)	53(1.9)	46(1.6)	47(1.6)	41(1.5)	146(5.8)	61(2.1)	62(2.0)	67(2.2)
중졸 이하	143(2.9)	141(2.6)	116(2.2)	120(2.3)	119(2.3)	241(5.1)	131(2.5)	137(2.6)	151(2.8)
고졸	438(4.5)	459(4.6)	460(4.6)	507(5.0)	393(4.0)	493(5.0)	386(3.8)	406(4.0)	443(4.3)
대졸 이상	327(3.6)	343(3.7)	310(3.3)	301(3.2)	306(3.2)	396(4.2)	352(3.6)	335(3.5)	338(3.5)
취업무경험 실업자	47	38	37	50	36	57	46	60	57
취업유경험 실업자	861	905	849	878	781	1,072	823	818	874

주 : ( )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 통계청(2010. 8), 『2010년 7월 고용동향』.

(정성미,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 임금동향

◆ 2010년 2/4분기 임금, 1/4분기에 이어 전년동기에 비해 높은 상승률 기록

○ 2010년 2/4분기,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680천 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6.2% 상승

- 상용근로자의 경우 기본급 등을 포함한 정액급여 증가율은 4.7%인데 반하여 경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초과급여 증가율이 24.0%를 기록하여 임금상승세를 주도
- 비상용근로자는 전년동기대비 15.4% 상승한 929천 원의 임금총액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1/4분기에 2.4%에 그친 것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치임.
- 경기회복으로 인해 임금상승률은 2009년 4/4분기 이후 회복국면으로 전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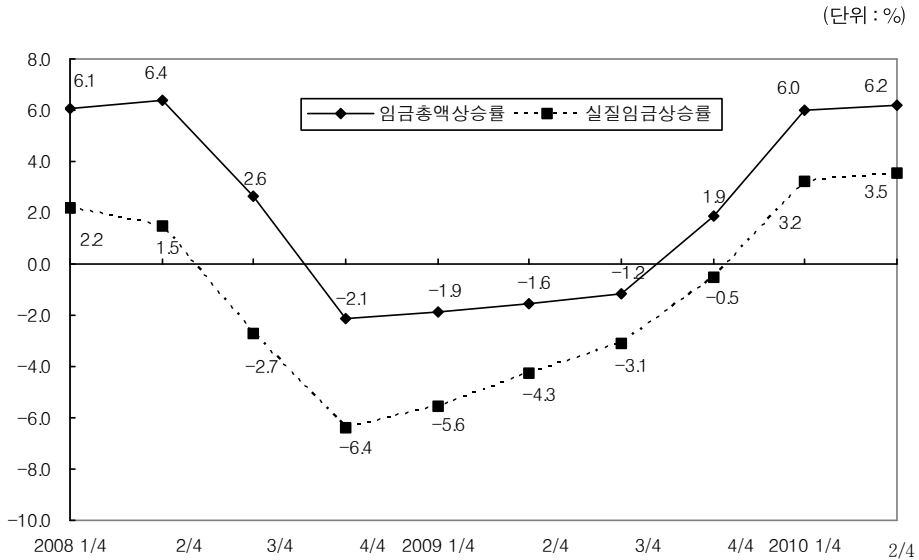
〈표 6〉 임금관련 주요지표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월, 2005=100.0, %)

		2007	2008	2009				2010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전체근로자	임금총액	2,561 (-)	2,640 ( 3.1)	2,622 (-0.7)	2,612 ( -1.9)	2,524 ( -1.6)	2,641 (-1.2)	2,711 ( 1.9)	2,769 ( 6.0)	2,680 ( 6.2)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2,716 (-)	2,810 ( 3.4)	2,795 (-0.5)	2,753 ( -2.1)	2,684 ( -2.3)	2,819 (-0.8)	2,915 ( 2.6)	2,922 ( 6.1)	2,834 ( 5.2)
	정액급여	2,026 (-)	2,154 ( 6.3)	2,166 ( 0.6)	2,142 ( 1.9)	2,156 ( -0.7)	2,163 ( 0.7)	2,205 ( 0.5)	2,244 ( 4.7)	2,258 ( 4.7)
	초과급여	165 (-)	163 (-1.1)	156 (-4.1)	139 (-17.4)	151 (-10.9)	164 ( 4.0)	170 ( 9.2)	170 (22.3)	187 (24.0)
	특별급여	525 (-)	493 (-6.2)	472 (-4.2)	472 (-12.5)	386 ( -5.0)	492 (-8.2)	539 (10.0)	508 ( 7.7)	389 ( 0.8)
비상용근로자	임금총액	904 (-)	855 (-5.5)	830 (-2.9)	829 ( -6.5)	806 ( -1.3)	817 (-7.2)	867 ( 3.7)	849 ( 2.4)	929 (15.4)
실질임금 (전체 근로자)		2,443 (-)	2,406 (-1.5)	2,324 (-3.4)	2,341 ( -5.6)	2,239 ( -4.3)	2,331 (-3.1)	2,389 (-0.5)	2,416 ( 3.2)	2,318 ( 3.5)
소비자물가지수		104.8 (-)	109.7 ( 4.7)	112.8 ( 2.8)	111.6 ( 3.9)	112.7 ( 2.8)	113.3 ( 2.0)	113.5 ( 2.4)	114.6 ( 2.7)	115.6 ( 2.6)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자료: 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그림 7] 임금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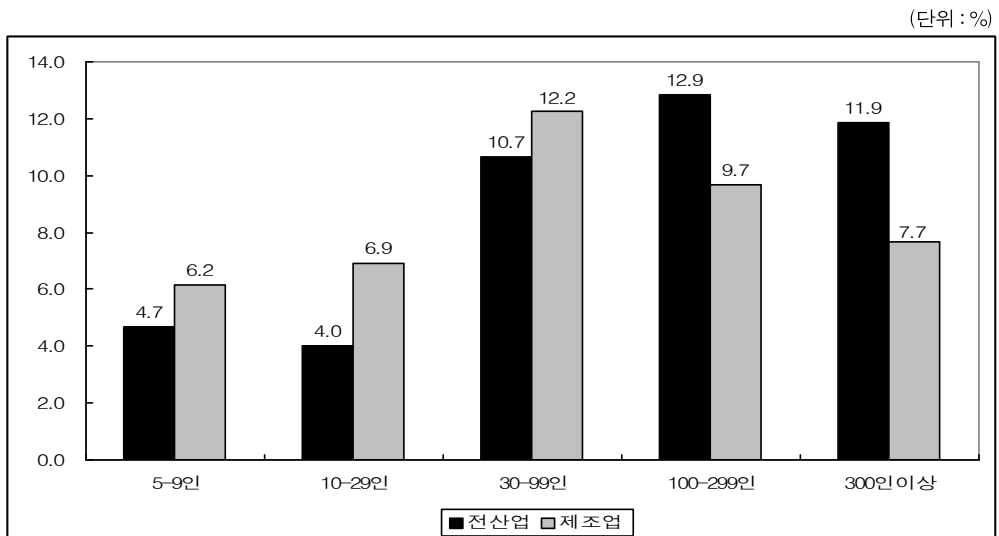


자료 : 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 실질임금은 3.5% 상승

- 2010년 2/4분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한 5인 이상 사업체의 실질임금은 3.5%의 상승률을 기록

[그림 8] 규모별 임금상승률(2010년 2/4분기)



자료 : 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 대규모 사업체에서 높은 임금상승률 주도

- 2010년 2/4분기 전체 산업의 규모별 임금상승률은 5~9인 4.7%, 10~29인 4.0%, 30~99인 10.7%, 100~299인 12.9%, 300인 이상 11.9%를 기록하여 대체로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세가 크게 나타남.
- 제조업에서도 이러한 추세가 확인되고 있는데, 5~9인 규모의 임금상승률은 6.2%인데 반하여 100~299인 9.7%, 300인 이상 규모에서는 7.7%로 나타나 규모간 임금상승폭의 차이가 나타남.

(강승복,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노사관계 동향

◆ 노사분규 발생추이

- 2010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 현재까지 노사분규 누적 발생건수는 55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3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근로손실일수(2010년 8월 25일 기준)는 345,071일로 집계됨.

〈표 7〉 노사분규 발생 추이

(단위: 개소, %)

	2010. 1. 1~2010. 8. 31	전년동기	증 감(%)
노사분규 발생건수	55	86	-36.0
종 결	39	74	-
진 행	16(3)	12(1)	( )는 전년도 이월
근로손실일수	345,071	440,577	-21.7

주: 당해 연도의 누적치임. 근로손실일수는 8월 25일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입법예고

- 8월 5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 조직·기능 개편 내용을 담은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복수노조 제도 도입으로 인한 노동위원회 기능 확대를 뒷받침하고 그

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신속·공정한 노사분쟁해결 서비스 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해 마련한 것

- 주요내용: ▲노동위원회 사건처리 절차·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분쟁해결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중노위 재심 이후에만 행정소송이 가능했던 것을 지노위 판정 후 중노위 재심신청 기간(10일)이 도과하는 경우에는 중노위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15일 이내)할 수 있도록 함 ▲심판·조정·차별시정으로 나누어져 있던 공익위원 담당분야를 심판과 차별시정을 통합, 심판과 조정담당으로 간소화하고, 공익위원이 소속된 지노위 사건만 담당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던 것을, 상황에 따라 다른 지노위 사건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위원 활용의 효율을 높이도록 함 ▲노동위원회 위원장·노사단체의 추천과 노사단체의 교차배제에 의해 위촉대상 공익위원을 선정하는 방식을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사단체의 의견을 들어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함.

- 이에 노동계는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노사를 배제하고 노동위원장에 전권을 보장하는 등의 개정안은 노사정 3자 기구인 노동위원회의 취지와 독립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비판

◆ KTX승무원,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소송 원고승소 판결

- 8월 26일, 서울중앙지법은 KTX승무원 34명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
  - 재판부는 KTX승객서비스 업무가 형식상 철도유통이 위탁협약을 맺어 승무원들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수행한 외관을 갖췄지만, 철도유통은 실질적으로 사업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철도공사의 노무대행기관으로 기능했다고 판시
  - 공사가 KTX승무원들의 노무를 제공받아 임금수준 등 제반 근로조건을 정하고 승무원을 채용하는 등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판결함.
  - 또한 재판부는 공사와 승무원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며 공사는 2005년 5월 15일부터 2008년 11월 15일까지 미지급된 월급을 지급하고, 2008년 11월 15일부터 승무원들이 복직할 때까지 일정비율에 따른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힘.
  -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철도노조는 공사가 1심 재판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으면 항소와 무관하게 승무원을 복직시켜야 한다는 단체협약 조항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공사는 판결에 항소할 의사를 밝힘.

◆ 금속노조

- 8월 9일 금속노조 소속 2개지부 2개사 426명 파업(8시간)에 이어 8월 12일 금속노조 소속 2개지부 3개사 1,316명 파업(6~8시간)
  - 8월 9일 노조는 『불법파견 노·정 공동조사 공식제안』 발표
  - ※ 보도자료 주요내용: ▲7월 22일 대법원은 현대차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근로자는 불법파견에 해당하므로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음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표본 실태조사를 통해 위반사례가 나타날 경우 시정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이에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대법원 판결에 따른 불법파견 공동 실태조사』를 공식 요청(문서)하였음.
  - 8월 12일 노조는 현대차와 사내하청 불법파견 사건을 무혐의 처분(06.12월)한 당시 울산지검장(천성관, 현 변호사)과 담당검사(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직권 남용 혐의로 대검에 고발(접수)
  - ※ 최근 파업현황(6.9 산별파업 돌입): ▲8.6 2개지부 2개사 428명 ▲8.9 2개지부 2개사 426명 ▲8.10 2개지부 2개사 417명 ▲8.11 2개지부 2개사 416명
- 8월 26일 금속노조는 불법파견 전수조사 및 노정 공동실태조사 제안 관련 입장 발표
  - 불법파견에 대해 전국적인 전수조사와 금속노조와의 공동실태조사를 제안(8.9)하였으나 고용노동부가 이를 사실상 거부하였다며, ▲지난 6년 동안 불법파견을 묵인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 ▲현대차 불법파견 130개 사내하청 즉각 폐쇄조치 ▲전국적 실태조사와 노정 공동실태조사팀 구성을 요구하고
  - 세 가지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고용노동부를 직무유기로 고발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밝힘.
  - 8월 31일 노조는 『7.22 현대차 사내하청 관련 대법 판결 이행 및 노동법 전면 재개정 촉구 등을 위한 확대간부 상경집회』 개최

◆ 기아자동차, 2010년 임단협 잠정합의

- 9월 2일 노조는 2010년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가결(임금 61.8% 찬성, 단협 58.4% 찬성) → 노사, 조만간 임단협 조인식 예정
  - ※ 재적조합원 30,231명 중 28,915명(95.6%) 투표 → ▲임금 17,857명 찬성(61.8%), ▲단협 16,899명 찬성(58.4%)
  - ※ 잠정합의 주요내용: ▲임금 : 기본급 79,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생계비 부족분 : 300%+200만 원, ▲특별 격려금 : 300만 원, ▲주식 120주, ▲주간연속2교

대제: 8/8+1(노사공동위원회 구성, 11.6월중 시행시기·방안 수립), ▲전임자: 유급 21명(38,000시간 한도) + 무급 전임자 별도 노사협의

- 타임오프 도입을 놓고 재계와 노동계의 대리전 양상을 보였던 기아차의 임단협이 20여년 만에 무파업 합의 도출, 개정노동법의 타임오프 규정대로 기아차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인 연간 3만 8,000시간과 일인당 연 평균노동시간인 1,888시간을 적용, 유급전임자(근로시간 면제자) 수를 21명(1명 파트타임)까지만 인정하는 데 합의하였으며, 고용보장 합의서 체결을 통해 현재 시점의 전 종업원에 대한 고용보장에 합의
- 그간, 5월 17일~6월 11일 노조가 7차례 임단협 상건례를 요청하였으나, 사측은 노조 요구안 중 전임자 처우 현행유지 등 수정·철회를 요구하며 불참
  - ※ 노조, 6월 14일 조정신청(6.24 중노위 행정지도) → 6월 24일~6월 25일 파업 찬반 투표 가결(65.4% 찬성)
    - 7월 1일 사측, 전임자 230명 중 업무복귀자 26명을 제외한 204명 무급휴직 인사명령 및 제공차량 24대 유류제공 중단 등 조치
    - ※ 노조, 7월 29일까지 4차례 추가 임단협 상건례 요청 → 사측, 전임자 급여지급 유지 등 위법적 교섭사항이 포함된 임단협 교섭은 수용할 수 없다며 불참 → 노조, 사측의 임단협 불참을 이유로 7월 22일~8월 15일 잔업거부
    - 8월 11일 노사, 임단협 교섭 개시 → 8월 26일까지 본교섭 6차례, 실무교섭 5차례 개최(전문 포함 127개조항 중 86개조항 합의, 41개조항 미합의)

◆ 서울도시철도공사

- 8월 31일 노조는 노조탄압중단·성실교섭 등을 촉구하며 8월 2일부터 지명파업(59명) 및 서울시청 앞 결의대회 계속 중
  - ※ 최근 지명파업 현황 : ▲8.23 76명 ▲8.24 69명 ▲8.25 52명 ▲8.26 69명 ▲8.27 50명 ▲8.30 74명
  - ※ 노조는 8월 2일~8월 13일 지명파업 후 → 8월 13일 지명파업기간을 8월 20일까지로 1차 연장 → 8월 20일 지명파업기간을 8월 28일까지로 2차 연장 → 8월 27일 지명파업기간을 9월 10일까지로 3차 연장
  - 한편, 노조는 9월 10일 서울시청 앞에서 『노동탄압 저지, 성실교섭 촉구, 단협투쟁승리를 위한 5차 조합원 총회』 개최 예정
- 노사교섭은 8월 11일 제16차 실무교섭 이후 중단 상태
  - ※ 노<사> 주요쟁점: ▲단협 채무적부분 효력 인정 <수용불가> ▲7월중 퇴직금 중

간정산 <하반기 예산(100억) 범위내 검토> ▲정년 2년 연장(현행 만 58세) <현행 유지> ▲현행유지 <퇴직금 누진제를 단수제로 변경> ▲수용불가 <전직원 연봉제 실시> ▲현행유지 <고용관련 사항 노조와 사전합의에서 협의로 변경> 등

- 그간, 노조는 2월 11일~4월 14일 16차례 단체교섭이 진전 없자, 4월 15일 중노위에 조정신청(4.30 조정불성립), 4월 16일~4월 19일 파업 찬반투표(82.1% 찬성 가결)
  - ※ 사측은 기존 단협 121개조항 중 41개조항 삭제, 56개조항 변경 제안 → 노조는 사측 제시안 중 연봉제, 휴가휴일 축소 등에 대한 사측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요구
  - 4월 30일 단협유효기간 만료(여후효 3개월 포함) → 5월 24일 사측은 서울경기지역 노조 사무실(사측 제공) 41개 중 21개 폐쇄조치
  - 7월 1일 노조는 사측의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4시간 파업(226명 참가)
  - 7월 22일 사측, 근무평가 하위자 등 36명을 직무재교육대상자로 선정(8.2 1명 퇴사)
  - 8월 2일~8월 27일 사측은 직무재교육 실시(대상자 35명 중 4명만 참석)
  - ※ 사측은 8월 18일 직무재교육 불참자 31명 대상 직권면직 심사 실시 **KLI**

(반정호,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